



봉우 컬럼

고집은 불통이다

한 고을에 무식하며 고집 센 사람과 배운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무식하고 고집 센 사람이 $9 \times 9 = 99$ 라 주장하고, 배운 사람은 $9 \times 9 = 81$ 이라며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둘은 원님을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청했다. 원님이 사연을 다 듣고 난 후에 고집 센 사람에게 “정말 $9 \times 9 = 99$ 란 말이나?” 라고 물었다. 그 사람은 씩씩거리며 “당연하죠.” 라고 답했다. 그러자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9 \times 9 = 99$ 라 말한 자는 풀어주고, $9 \times 9 = 81$ 이라 말한 자는 곤장 열 대를 쳐라.”

졸지에 배운 사람은 열 대의 곤장을 맞았다. 당연히 억울했지요. 그래서 원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원님 왈, “ $9 \times 9 = 99$ 라 무식하고 고집 센 놈이랑 싸운 어리석음을 알렸다.”

고집은 불통(不通)이다. 안 통한다는 것이다. 똥고집, 웅고집, 황소고집... 안 통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고집 센 사람과의 싸움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늘 말한다.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라 그것이야 말로 에너지 낭비요, 시간낭비요, 돈 낭비가 된다.

나는 고집이 아닌 소신 있는 사람이 좋다. 고집과 소신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에는 유사한 듯하나 확실히 다르다. 고집은 자기의 뜻이나 주장에 집착하는 것이고, 소신은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며, 생각이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집쟁이는 자기주장이 틀려도 끝까지 우기지만, 소신 있는 사람은 완고하다가도 자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뜻을 굽히는 용기를 가진다.

고집을 버리고 소신을 가져라. 이 사회는 소신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사회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고,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 침이 없느니라”(잠29:9).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의 약 2배가 되는 영토, 약 천만의 인구, 동쪽으로는 러시아(Russia),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Ukraine), 서쪽으로는 폴란드(Poland), 북쪽으로는 리투아니아(Lithuania) 및 라트비아(Latvia)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벨라루스(Belarus).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항상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의 폭격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인구의 30%가 사망하는 역사적 아픔을 겪었다. 역시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하였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아래 놓여있고, 1994년부터 20여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다. 그러나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시 집회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2011년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시 만난 슬라바 목사는 여전히 총회장 목사님의 벨라루스 방문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의 기독교 핍박으로 슬라바 목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회에서 내쫓겨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사님께 눈물로 기도를 요청했었다.

슬라바 목사는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아내 이리나(Irina)와 함께 예쁜 크리스마스카드를 목사님께 보내오곤 하였다.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해외목회자들을 보았지만, 잊지 않고 카드

로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런데 지난 달 슬라바 목사로부터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벨라루스의 슬라바 목사가 새로 교회를 짓고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야외로 떠돌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고 드디어 새로 교회를 건축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한반도 위기에 해외집회 일정들을 취소하고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전념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구상하며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계셨는데, 다른 여러 해외집회 요청



벨라루스 집회를 준비한 슬라바 목사 부부

독재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 또한 거센 지역이다. 러시아권에 나타나는 기독교 탄압의 성격은 고전적인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거나 임대료 등을 대폭 상승시켜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지만, 벨라루스는 독재국가답게 좀 더 정치적이다.

이번 벨라루스 집회는 목사님의 방문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지난 2007년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열렸던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에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Minsk)에서 새생명교회(New Life Church)를 이끌고 있는 슬라바(Slava Goncharenko) 목사가 참석했었다. 그는 3박 4일의 세미나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벨라루스로 돌아가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

을 보내며 은혜를 기억하는 슬라바 목사의 의리가 남달라보였다.

그리고 다시 6년이 흘렀다. 그동안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도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로인해 러시아권 선교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 사태는 러시아어 통역관인 슬라바 목사의 비자문제에 영향을 끼쳤다.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2013년 체코(Czech)와 슬로바키아(Slovakia) 집회를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슬라바 목사를 만날 수 없었다. 전화나 SNS를 통하여 현지 소식을 접할 뿐이었다. 드네프로 예수중심교회의 슬라바 목사는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와와의 전투

과 달리 슬라바 목사의 요청에 대해서는 깊은 감동을 받는다며 기도해보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달 초, 목사님은 벨라루스 집회를 결심하시고 전 성도들에게 광고하며 기도를 요청하셨다.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재건한 슬라바 목사의 신앙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벨라루스 집회는 슬라바 목사의 굳건한 신앙의 결실이기에 더욱 감동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벨라루스 집회의 성공과 목사님의 건강, 그리고 집회에 동행하는 일행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벨라루스 집회

6월 5(월) ~ 15일(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8:18~20)

연장이 좋아야 일이 즐겁다

지난 주, 어느 장로가 기도원 사택에 백일 흉을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장로가 회사 총수인지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사 사람들이 대형트럭에 커다란 백일 흉 두 그루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원 사택 대문이 좁아서 이걸 어떻게 대문 안으로 들어오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네들이 일하는 방법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도원 식구들과 저는 대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네들은 대형크레인으로 담장을 넘겨 이 나무들을 옮기는 것 아닙니까? 놀라웠습니다. 대문을 통과했다면 다들 고생했을 텐데 크레인으로 간단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이 좋으면 일이 즐겁고, 쉬워집니다. 한 시간 삼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포클레인으로 한 번 폭 파는 게 낫습니다. 기도원에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해도 버거운 일을 트랙터 한 대가 해내고, 지게차가 거뜬히 해냅니다.

여러분, 저는 삶 속에서 연장의 이름을 '지혜'라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 (잠4:7).

일꾼에게 연장을 주고 군인에게 무기를 준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연장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일천 번제를 드린 후 꿈속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왕상3:5)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입니다. 어느 재벌의 상속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 신랑감을 찾는데, 그의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지켜줄 지혜로운 사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사위후보들을 하나씩 딸과 데이트를 시키는데, 잠실야구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관객이 다 차서 표가 매진일 때요. 그 때 딸이 신랑후보에게 "경기를 꼭 보고 싶다. 경기장에 꼭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랑후보가 암표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랑후보는 이 상황이 오자 여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어디서 구했는지 고층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쓰는 고가 사다리차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와 함께 짐 싣는 자리에 앉아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는 경기장을 내려

다보며 야구경기를 즐겼습니다. 당연히 상속녀는 그 남자와 결혼했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전7:12).

지혜 중의 으뜸은 '사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만한 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막3:16~19). 외출보다 삼겹줄이 강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똑같은 연장을 쥐서 함께 일하면 훨씬 능률적이니까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중풍병을 앓아 움푹달작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수님 앞에까지 갔습니까? 바로 친구를 활용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창의력과 도전의식이 뛰어난 자들이라 어려운 환경을 뚫고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상의 연장은 없습니다. 또 노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그가 그토록 원하고 소원하는 예루살렘 성곽 재건을 이루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자를 잡아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도르래를 이용하면 무거운 것도 훨씬 쉽게 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을 벨라루스 집회에도 그 지역의 재력가나 권력자를 잡아 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인재중심의 경영을 하는 것도, 인재사냥에 사활을 거는 것도 결국 그들이 최고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사람으로 인해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음식점이 될 수 있고, 최고의 학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11:30).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됩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지 말고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연장을 받은 후에 나가서 일을 해야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은사도 받게 됩니다. 은사(恩賜)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총을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전12:8~10). 각 사람에게 맞는 연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병 고치는 은사로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 먼 자를 보게 하며, 병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꼬부라진 것을 펴게 하며, '예수이름'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비를 멈추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여 장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연장 없이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물은 퍼내야 마르지 않고 무딘 연장은 갈아야 빛난다

그런데 이 연장을 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도가 다 가지고 있다면 더욱 일이 잘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모든 성도에게 성령 세례를 주어 연장을 갖게 하고, 또 연장을 가지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급속하게 부흥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 그럼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제한합니다. 목사보다 전도사가 능력이 있으면 내쫓습니다. 어느 교회는 방언 기도 하는 것도 잘못 되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연장을 다 빼앗는 데요. 부흥은 고사하고 귀신이 판을 쳐서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연장을 쓰지 않으면 녹슬고 무뎠집니다. 자주 쓰는 열쇠는 반짝이지만, 안 쓰는 열쇠는 녹슬어 문을 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는 것입니다(전10:10). 그러니 연장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최고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약1:5). 하나님이 당신을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기대

주여~~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술한 인생의 질문조차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춘기를 지나며 고민에 빠지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문제일 것이다. 그냥 세상의 톱니바퀴에 끼여 부속처럼 굴러가는 삶을 지속하고 싶은 인간은 없다. 뭔가 세상에 나온 자기만의 가치와 의의를 발견하고 어떤 나만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고 잡히지가 않기에 부평초처럼 떠돌며 방황하는 아픈 젊음들이 많다. 더구나 오늘날 청년실업의 증가로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오늘의 젊음은 힘들어한다. 드넓은 세상에 홀로 던져져 있다는 고독과 의욕상실, 기성세대는 나약하다 질타하고, 그러나 출구는 보이지 않는 현실, 따라잡기도 힘들게 변화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새로운 미래는 과연 기회인지 재앙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쁨은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와 계획 속에 이 땅에 왔고, 내 삶은 그분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단순 명확한 삶이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끝. 비록 약하고 넘어져 때로는 하나님의 기

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힘들어 넘어질 때조차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삶은 매일이 감사요 찬송이다. 지금 내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힘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예수 믿는 것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야.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 뜻이래.” 그래, 그렇다. 뭐라 조롱하든 상관없다. 그네들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언제든 나를 주목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내 기도를 기다리시고, 내 결단에 박수를 보내시며, 나의 꿈과 희망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신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도 그분의 기대가 나를 일으킨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신앙논객 ::

영혼의 미세먼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들마다 10대 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웠던 공통적인 것이 바로 ‘미세(微細)먼지 대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현 정부의 과제 중에서도 아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친숙해진 이 미세먼지는 외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요새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인 것 마냥 입에 마스크를 착용케 했고, 관련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도 급증하여 날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날씨를 확인하는 일처럼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와 신문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 계속 접하다 보니까 ‘오,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괜히 냄새도 한 번 맡아보고 하늘만 몇 차례 쳐다봤을 뿐, 원체 이런 것에 둔감하다 보니 그냥 구름 없고 햇볕 내리쬐면 좋은 날씨인 줄 알고 아무 대책 없이 여기저기 쏘다니곤 했더랍니다. 지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딱 차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날이 흐린 건지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미세먼지 안에는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고 호흡기뿐만 아니라 혈관계까지 흡착되어 뇌졸중, 심장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

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우리의 영혼에도 마치 이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의 건강과 신앙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영혼의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부정적인 말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하는 가식과 위선, 습관적인 거짓말과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말, 만족을 모르고 남과 비교하며 계속 더 얻고자 하는 욕심과 열등감... 이런 영혼의 미세먼지들이 꾸역꾸역 우리 심령 속에 들어차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미세먼지’가 우리 신앙에 암을 유발하고 호흡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경이라는 ‘영혼의 마스크’를 쓰고 날마다 깨어서 ‘영혼의 공기청정기’인 방언기도를 가동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관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의 쾌적함을 유지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나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무상으로 생활하다가 졸업 후 갈 곳이 없었다. 같이 공부하던 여학생이 주선하여 중국교포 할머니가 기거하시는 야산 밑의 원룸을 사 용하게 되었다. 24시간 간병하는 분으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중국에서 아들이 사고를 당하여 상당 기간은 못 돌아온다고 하였다. 방세는 월 10만원으로 하고 그저 입을 옷가지 조금 가지고 원룸에 들어갔다. 한 달 반쯤 지난 뒤 집을 비워 달란다. 할아버지 애인이 생겨서 방을 비워줘야 한다. 간신히 10일 말미를 더 얻었다. 내 주머니에는 3만원이 고작이었다. 만 하루 동안은 엄동설한에 쫓겨날 걱정에 살다가 ‘주여, 어차피 이리 된 것 큰 방으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 당시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어 지인이 연관된 회사의 신규 사업에 영업을 하여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였는데, 급한 김

에 회사 명의로 방 보증금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부탁 받은 지인이 미안하다며 저녁식사를 하자 하여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여의도에 주꾸미로 유명한 음식점에 갔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번잡했다. 자리를 잡고 앉는데 뒤에서 누가 ‘사장님!’ 하고 부른다. 뒤돌아보니 12년 전에 데리고 있던 영업과장이다. 그간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정말 우연히 만났다. 그 직원이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월세, 관리비 다 부담하여 주여 3년째 살고 있다. 일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이니 하늘이 움직인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라 생각한다. 마음을 지켜 일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쁠 땐 ‘주여’를 외쳐 감사드리고, 슬프고 괴로운 땐 ‘주여’를 외쳐서 그 괴로운 생각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광주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자

성 프랜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 나라를 구경하게 되었다. 아주 높은 곳에 빈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저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랜시스가 앉을 의자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아무리 스승이지만 너무 높아지는 것에 질투가 생겼다. 그는 조용한 시간에 프랜시스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랜시스는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자 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대들었다. “선생님, 그건 교만입니다. 다들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자, 온갖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한단 말씀입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래!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모르네!” 참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고백이다. 은혜를 자랑하면 겸손이고, 나

를 자랑하면 교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신을 자랑한다. 그것이 교만이요,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섬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는 도구로 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103:2) 라고 자신에게 명하였고,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고 고백했다. 나는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임택환 목사
cjcc1004@hanmail.net

책이 운명을 바꾼다!



지난 5월 27일 '자기개발을 통한 성장'이란 주제로 '제3회 젊은 부부를 위한 세미나'가 신도림 그린아트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1부 '풍요로운 우리 집 재정관리'를 주제로 한국GM 연구원 장명훈 집사가, 2부 '독서를 통한 자기개발'을 제목으로 서울예수중심교회 이시대 목사님이 강단을 빛냈다.

먼저 1부 강의를 맡은 장명훈 집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정 재정설계를 위해 첫째, 하루 1분 가계부 작성을 생활화하고, 둘째, 주일 10분 대차대조표 관리로

가계재정의 부채와 자산을 한눈에 파악하며, 셋째, 손익계산서 작성을 통해 소비행태를 파악 및 개선하도록 권했다.

또한, 적정한 가정재정 비율 유지를 위해 첫째, 보험은 수입의 8%미만으로 리모델링. 둘째, 일반지출 50% 유지를 위해 할부사용 자제 및 가치상승, 사용빈도를 고려한 똑똑한 소비. 셋째, 만약을 대비한 예비비 10% 확보. 넷째, 십일조 이외에도 주의 일과 타인을 돕기 위해 선행통장 10% 유지. 다섯째, 이렇게 확보된 기타 금액으로 저축 및 투자하는 방법과 노후 준비 자금을 위한 연금설계법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었다. 무계획한 지출에 치중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이었다.

2부 강사로 나선 이시대 목사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면 스마트폰과 TV리모컨을 놓고 책을 잡으라!'는 강력한 선포로 시작하셨다.

책은 평균 이하의 개인, 단체, 국가를 명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마스터키로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에 산만한 아이라는 평가에서 독서를 통해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고, 처칠은 날마다 꼴찌에서 하루 5시간 독서로 2차 대전의 영웅이요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위인으로 변화되었으며, 아인슈타인은 무엇을 해도 성공하기 힘든 아이라는 평가에서 독서를 통해 당대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다. 록펠러 재단의 시카고 대학도 삼류대학에서 고전명작을 반복해서 읽는 'The great books program'을 진행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무서운 교육열로 문맹률 2%의 지식기반 국가로 급성장하면서 다른 나라에 교육모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책 한 권을 며칠씩 읽다 보면 기억에도 남지 않고

완독(完讀)이 어려우므로 하루에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읽고자 하는 독서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인 다독(多讀)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독서 후에 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와 기억에 남는 구절 등을 담아 자신만의 독서노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책을 고를 때는 책 안에 추천도서나 유명기관의 권장도서를 참고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일 집까지 전해주는 보물중의 보물인 신문읽기를 생활화하라고 당부하셨다.

'가난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책을 읽으면 존경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제창하며 다시금 1일 1권 독서열풍을 다짐하고 돌아간 젊은 부부들이 다음 세미나까지 3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는다.

하인명
renming@daum.net

JCC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난 5월 27일 토요일 저녁,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에서 JCC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신일철 지휘자를 비롯한 40여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작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기량과 청중과의 음악적 소통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개인의 출중한 기량과 클래식 음악을 통한 오케스트라만의 웅장함,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곡을 선

정하여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첫 연주곡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로 문을 열었고, 음악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강한 형제의 오보에(Oboe) 솔로연주, 자신만의 오케스트라를 재창조한 바그너와 음악의 천재라 불리는 모차르트의 곡으로 클래식 음악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웅장함과 풍요로운 음향을 뽐내었으며, 연주회 하이라이트 손대우 형제와 이미현 자매의 피아노 합주가 있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유학한 피아니스트 손대우 형제는 피아노 합주를 통하여 출중

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훗날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서 금관 5중주의 아름다운 연주가 있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이날 JCC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문을 닫았다.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연주회라 그런지 JCC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도, 관객들의 자세도 매우 좋았다. 그래서 연주회가 더 빛이 났고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였을까? 연주 후 관객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여러 차례의 앙코르 연주가 있었다.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지휘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음악에 대한 조율도 있지만 공연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지휘한다.

단장 겸 지휘자인 신일철 집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전에는 무조건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앉아 있는 청중들을 생각하니 부담감이 생겨났다." 그것은 아마도 아마추어 입장에서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해서 했지만 이제는 청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의 전달자로서 음악의 웅장함과 음악언어, 음악치료, 음악소통에 대해 들려줘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일 것이다.

그렇다. 이들은 말 그대로 아마추어들이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품격이 높아지는 오케스트라의 모습이다. 아마추어지만 품격 있는 오케스트라! JCC 오케스트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또 내년 연주회를 기약해본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와이에는 아주 유명한 서퍼가 한명 있습니다. 배서니 해밀턴이라는 서퍼인데요.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외팔의 서퍼이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십대 시절부터 촉망 받는 프로서퍼 유망주였는데요. 14살 때 친구와 함께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길이가 약 5미터 정도 되는 타이거 상어에게 왼쪽 팔을 전부 물어 뜯기게 됩니다. 당시 그 사고는 혈액의 60퍼센트를 잃을 만큼 심각한 사고였다고 하지요.

상어의 공격을 받은 후 보통은 바다를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녀는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서핑 연습을 시작하고 대회까지 참가합니다. 한 팔로 서핑보드에서 균형을 잡고 거친 파도를 타는 건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

어서 결국 여러 대회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그녀는 계속 용기를 내어 바다로 나가지요. 사람들은 두 팔로 1등 하던 예전의 그녀보다 한 팔로 탈락한 그녀에게 더 많은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도전에 함께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인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극복해야 할 여러 일을 만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이를 극복했고, 끔찍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상어로부터 그녀의 왼팔을 지켜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

의 삶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저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깊이 존경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세 명의 유대 소년들은 바벨론의 왕실 장학생으로 선발될 만큼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어느 날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선포할 때에 그들은 왕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낸 그 믿음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대로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늘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기도대로 된 것도, 기도대로 되지 않은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가장 크게 낙심시키는 것은 제가 바라고 기도한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벌주시는 건가 마음이 어지러웠지요. 이제는 사모해봅니다. 기도한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까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더 많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